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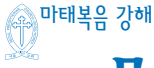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무슨 권한으로 이러느냐?

(마 21:23-32)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Matt. 21:23-32)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아세웁니다(23절). 이것은 가르치는 일 자체보다 전날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을 마음에 두고 한 말입니다.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 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구나" 라고 호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그 뒤에 어떤 엄청난 권력이 있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들이 자기들을 대항하여 싸울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모르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며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종교지도자들과 같은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과 같은 아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When Jesus taught the Jews in the temple courts,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came and pressed Jesus by what authority he was doing those thing (v. 23). This explains that the incident that occurred the day before Jesus cleaned up the Temple. He wanted them keep their mind on more than his teaching itself. Jesus drove out the buyer and seller of animals from the temple, overturned the table and benches of money changers, and in the moment that he scolded sternly,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are making it a 'den of robbers,'" is behavior in which they feel afraid of tremendous power.

However, Jesus all the more said to them, "Where did John the Baptist come from? Was it from heaven, or from men?"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of the people who were asked put their heads together. If they say, that John the Baptist came from heaven, he would ask why they did not believe him, and that John came from men, they would be afraid of fighting against them. That is why they answered, "We don't know." So, Jesus said, "Ne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And He also spoke about the parable of two sons.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the first son was like a religious leader, the other was like a tax collector. However, Jesus said shocking words which the tax collector, prostitute, and alien might enter the kingdom of God ahead of the Jews.

1. 예수님의 지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이 역대 대제사장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빌라도 혹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들먹였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셨다면 그 또한 큰 어려움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권세를 들먹인다면 조롱하며 체포하려고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운운하면 참람죄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시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당황에 빠뜨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셨습니다.

2.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2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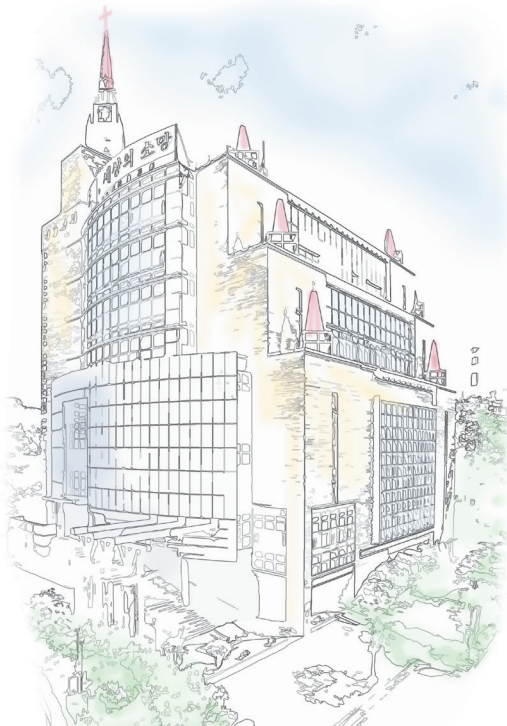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임한 권세,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입니다(고후 5:20).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죄 가운데서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The wisdom of Jesus

If he mentioned the priests' name of many generations, Pilate or Roman Emperors' names, in front of chief priests and elders, Jesus would open himself to ridicule. On the contrary if he remained silent, Jesus might have a great difficulty.

The chief priests were fully ready for finding fault. If Jesus mentioned some persons' authority, they might try to mock and arrest Jesus, and if he mentioned God, they might try to arrest him as a guilty of blasphemy. And there, in that Jesus asked them for the John the Baptist, he made them embarrassed. That's why Jesus could get out of that situation.

2. Where did Jesus' authority come from?

"John's baptism, -where did it come from? Was it from heaven or men?" (25).

The John the Baptist came from heaven. This means that Jesus also works with the authority that was given by God. Upon seeing Jesus at first in the Jordan River, the Baptist John testified as follows: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That's right. Jesus worked with the authority that was given by God, almighty God, creator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My beloved Christians,

We are ambassadors on behalf of Christ. We must live our life with the Christ who has all of the authority in the world. Therefore, we must, just like Jesus, fasten our waist with modest, and serve other people as Jesus has done.

By remembering God who delivered us from sins and made us adopt his children.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people who always obey His word and live your victorious lif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동계 비전트립 파송식

오늘 찬양예배 시
2월 2일(월)~12일(목) / 미안마 양곤

동계비전트립(지도 : 유문건 목사, 단장 : 최차순 장로)이 오늘 찬양예배 시 파송식을 갖고 내일 미안마 양곤으로 출발한다.

선교위원회(위원장 : 이영기 장로)는 작년에 2015

년 동계비전트립 지역을 미안마 양곤으로 확정하고 단장으로 최차순 장로를 임명하여 지금까지 모든 훈련을 마쳤다. 이들의 입, 출국 및 선교현지에서의 모든 일정과 건강 등을 위해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다.



2015년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

오리엔테이션 : 오늘 오후 4시, 본당 / 수여식 :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5년 전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에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47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 자라나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동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송암장학생-22명**
전미정 전미경 박유란 한현지 이다현 이해진 정상준 이성화 김기남 제연주 김문범 이예원 김 휘 임채언 오소정 김진안 박경은 이동훈 한동현 신도빈 윤석준 강경민
- * **고등부-4명** 김은초 정에빈 김미르 남유라
- * **디아스포라부-6명**
최아라 홍지아 김혜경 김수진 정윤희 조영금
- * **교역자, 선교사자녀-12명**
황신혜 김지혜 우하은 김예림 이준행 김예나 정에스더 김노수 조라빈 조라혜 이평화 이지행
- * **호산나전문대학-3명** 류근휘 김종열 김신타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에바다부, 2월 7일(토) / 서울교회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7(금)~2.28(토)	서울교회	하나님, 저 왔어요!	박노철 목사 /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박노철 목사 / 양세라 목사
유년부			복음으로 사는 유년부	박노철 목사 / 고수은 전도사
초등부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박노철 목사 / 김안성 목사
고등부	2.26(목)~28(토)	아가페타운	복음을 통해 얻는 자유	박노철 목사 / 천세중 목사
청년부	2.12(목)~1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마6:10)	서준권 목사 장재원 전도사 / 정대는 전도사
청년2부				
사랑부	2.8(주일)	서울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부	박영준 목사
에바다부	2.7(토)	서울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임규현 목사

스데반회수련회에 초대합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원하시는 스데반회(회장 : 홍일성 집사)가 되기 위해 수련회를 가집니다.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특강과 기획위원장 서문석 장로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양식을 얻는 수련회가 되어 스데반회 회원 모두가 서울교회를 섬기는데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 일 시: 2월 7일(토)오전9시~ 오후3시
- 장 소: 101호



원종천 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대학원장)

신앙강좌부 개강

오늘 12시 40분 / 601호

신앙강좌부(부장 : 진교남 집사)가 원종천 목사(아세아연합 신학신학대학대학원장)를 강사로 오늘 2부예배 후 601호에서 개강한다. 성도들의 많은 참석바란다.

B.M.W.운동
동참합시다



Bus



Metro



Walking

다락방리더 훈련 개강

2월 4일(수) / 수요일부예배 후

다락방리더 훈련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2월4일(수) 개강한다. 수요일부예배 후 교육이 진행되며 다락방리더들은 전원 참석하기 바란다.

농어촌 100교회 후원자

박노철, 김은경(1) 정치은(0.5) 전인상, 정은순(1) 최현철, 김명아(2) 이정수, 최경분(1) 추석우, 박정애(0.5) 김승록(0.5) 오민정(0.5) 최양진(1) 박혁, 임영숙(0.5) 황광(0.5) 강낙훈(1) 민혜정(1) 장창수(0.5) 한광훈, 장미자(1) 배옥선(1) 성백우(1) 정완진, 김희순(1) 전광영, 김인숙(1) 에스더전도회(2) 아브라함선교회(1) 구본혜(0.5)

(다음주 계속)

비전2020 후원자

이순례(2) 양옥자(1) 임병우, 임혜림(1) 배재송, 임분도(1) 성선규, 김명심(3) 백훈(1) 김명심(1) 윤운(1) 김상태(2) 김지욱, 김도형(2) 노영찬, 홍은경(1) 박길자(1) 백승갑(1) 김광욱, 서영희(1) 이관규(2) 윤찬오(1) 홍재식(1) 나점균, 최근자(1) 하정자(1) 노문환(1) 이금순(1) 김장섭, 최춘숙(1) 김민주(1) 김민선(1) 차영도(1) 이상섭(1) 차도훈, 남태영(1) 김주현, 권우주(2) 김요섭, 이인숙(4) 강석조(1) 신충균(1) 김정숙(8) 최규초(1) 사라전도회(2) 구본혜(1) 권길자(2) 한나전도회(3) 뱀뱀전도회(5) 전봉길(1) 안창휘, 정봉금(1) 전인상, 정은순(1) 정치은(1) 이복규(1) 강택근(3) 박정애(1) 김순영(1) 이재순(2) 권소희(1) 김재용, 김내령(2) 오민정(1) 강영순(1) 김숙자(1) 남영주(1) 이선자(1) 김영정(1) 박혁, 임영숙(1) 최양진(1) 김영준(1) 최무순(1)1) 백정순(1) 황희성(1) 이유성(1) 신정순(1) 이갑진, 박우주(2) 최영순(1) 김성준(3) 강낙훈(1) 12-13 다락방(1) 윤명구(1) 윤태욱, 박순복(1) 강신행(2) 박동희(1) 이순용(1) 이윤자(2) 김은연(1) 김정제(1) 아브라함선교회(5) 에스더전도회(2)

(다음주 계속)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구본혜(0.5) 김미리2(1) 전봉길, 임선영(1) 정철웅(1) 강택근, 정유선(0.5) 정치은(0.5) 전인상, 정은순(3) 이정수, 최경분(1) 권소희(1) 배재송, 임분도(1) 김상식, 이순례(1) 양옥자(1) 성선규, 김명심(1) 이재봉, 이경구(0.5) 송인권(0.5) 송행희(0.5) 윤운(1) 임충식, 신선주(1) 김상태(0.5) 권수정(1) 김광태, 최종희(0.5) 김승록(0.5) 한승집, 최미아(1) 오민정(0.5) 이영희(0.5) 박윤혜(1) 김광욱, 서영희(1) 김태균, 김정미(1) 이관규(1) 오치열(0.5) 이유성(0.5) 송영준(1) 강낙훈(1) 민혜정(0.5) 전숙향(0.5) 임하린, 하람, 하울(4) 노문환, 장정화(1) 김성주, 한주희(1) 김장섭, 최춘숙(0.5) 김재혁(2) 이미경(8) 최원석, 박길희(0.5) 이진명, 최영희(3) 황주, 서해숙(0.5) 차도훈, 남태영(1) 김석봉, 박동희(0.5) 이상섭(1) 김효택, 김필임(0.5) 이종일(1) 김요섭, 이인숙(4) 김주현, 권은주(1) 유현주3, 이은미(1) 김은연(0.5) 강석조(0.5) 이윤자(0.5) 뱀뱀전도회(1) 뱀뱀전도회(0.3) 한나전도회(1) 아브라함선교회(1) 에스더전도회(1) 에스더전도회(0.2) 사라전도회(1)

(다음주 계속)

2015 동계비전트립을 떠나며

미얀마의 영혼을 위하여!



유문건 목사
(동계비전트립 지도)

미얀마 비전트립팀이 2월 2일부터 12일까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 2개월 간 단장이신 최차순 장로님을 비롯한 12명의 비전트립 단원들은 매주 함께 모여서 복음으로 변화될 미얀마 땅을 마음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해왔습니다. 매 시간 하나님께서는 비전트립단원 각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교회가 현재 후원하고 있는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1일 어린이성경학교를 열고, 미얀

마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고 있는 선지동산인 신학교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우물과기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22개 후원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의 열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내일 미얀마를 향하여 복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귀하신 서울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 유문건 목사 / **단장 :** 최차순 장로
***단원 :** 박권준 김순영 김태옥 노애리 장해운 조성경 강주은 안혜련 최의진 정윤재

- 기도 제목 -

1. 2월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흥통하며, 질서와 안전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2.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미얀마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3.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22개의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흥하며 성장하도록
4. 단원 모두가 질병없이 건강하며, 기후와 숙식에 잘 적응하도록
5. 사역에 영적인, 문화적인, 물리적인 방해가 없도록
6. 미얀마 기독교인들(4%)이 박해 아래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에바다부 수련회 초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에바다부



임규현 목사
(에바다부 지도)

비전과 소망을 품고 올 한 해도 주님께 헌신과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한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부 가족들도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들을 실천하고자 기도드리며 노력하며 복음으로 살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의 여러분을 위해 에바다부에서는 오는 2월 7일(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에바다부실에서 일일겨울수련회를 갖습니다. 여러분을 에바다부 겨울수련회에 초대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에바다부 수련회에 농인들뿐 아니라 수화에 관심 있고 농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하루동안 귀한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합의 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에바다부가 되어 올 한 해도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에바다부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부 겨울성경학교 초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랑부



이예정 집사
(사랑부 교사)

매 주일 10시 30분, 서울교회 102호에서는 사랑부 예배가 진정을 다해 드러지고 있습니다.

사랑부는 모든 성도들이 아시다시피, 심신이 조금은 불편한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부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족하고 부담스럽기까지 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부지체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예

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 교사들은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2월 8일 주일에는 사랑부 겨울성경학교가 열립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랑부'라는 주제하에, 박영준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시며, 각종 찬양과 율동, 게임, 말씀퍼즐 맞추기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날의 아름다운 잔치에 성도님들 함께 하심으로서 한마음으로 주님앞에 한걸음 더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조경숙 집사
(16교구)

을 시작했습니다.

간사님께서서는 인원에 구애 받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감당해 보라고 하셨고 교구장 장로님께서도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마음먹은 대로 매주 금요일 빼먹지 않고 다락방 모임을 꼭 가졌습니다. 교회 행사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도 금요일 다락방 모임만큼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흠여졌던 식구들이 차츰 다락방을 기억하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 그 동안 기록했던 다락방 모임 일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2014년 2월 4일 수요일 첫 다락방 리더 훈련을 마친 후 오늘까지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모임 때마다 주일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제목

을 세세하게 듣고 함께 중보기도하게 되면서 많은 기도응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면 저는 새가족과 통화를 하면서 가족 사항을 파악한 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세하게 단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고3의 엄마인 저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두 분을 다락방 모임에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초신자인 한 분과 예수를 믿지만 10여년 다락방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간은 다락방 모임에 참여할 것을 수차례 권했으나 반응하지 않으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박노철 목사님께서 다락방 모임의 중요함을 말씀하실 때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면서 저에게 다락방 모임에 나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락방 모임으로 인도했고 모임을 참석하면서 나눔의 기쁨과 중보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 분을 통해서 우리 다락방 식구들은 새벽기도에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흥해작전 때 일곱 명이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되고 지금까지 계속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원들이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게 되면서 같이 교회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초등부 전도집회 교사 도우미를 급하게 모집하기에 함께 섬기기를 다락방원들에게 권유하였고, 세 분이 참여해서 은혜 가운데 6주 동안 봉사할 수 있었으며, 중등부 수련회 때

는 아가페타운에서 도우미를 하며 아이들과 힐링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모두 교회 봉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목사님, 간사님, 장로님 등 많은 분들의 도움과 때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세 명으로 시작했던 다락방 모임이 13명이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면서 나눔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준비도 부담이 되고 교제 가운데 주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삼삼오오 분리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내년에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다락방 식구 중에 리더로 세울 분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추천해서 교구 일꾼 양성반에서 교육 받기를 권유했고,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집사님들이 올해 16교구 2다락방에 정은경 집사님은 다락방장으로, 강소영 집사님은 부다락방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준비ப்ப기를 해서 두 다락방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진 : 이준태 집사 (편집부)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월5일(목)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기자회견, 새로운한국을 위한 정적운동에 관한 '미래한국' 과의 인터뷰를 한다. 2월7일(토) 사랑의쌀운동, UBU이사회에서 설교한다.

■ 주일식당방사 : 한나전도회(2.1) / 에스더전도회(2.8)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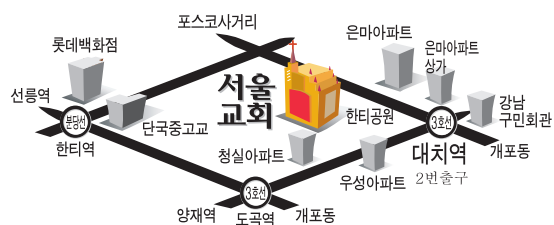
1. 2월 2일 부터 12일까지 파송 될 미안마 동계 비전 트립팀이 잘 준비되어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2. 2015년 전반기 장학생들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 갈 기동과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3. 예바다부 겨울수련회(7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4. 농어촌100교회, 한 가정 한 선교사, 비전2020운동을 위한 후원이 풍성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